

정절의 역사는 끝났는가?

- 이숙인의 『정절의 역사』(푸른역사, 2014)를 읽고 나서-

정수복(사회학자/작가)

충효에서 충효열로

모든 인간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제도를 만들고 그 가운데 가족제도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이다. 가족제도를 통해 남녀관계의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정당화한다. 남성의 여성 지배는 모든 지배의 원초적 형태를 구성하면서 가장 끈질기게 지속되는 지배형식일 것이다. 유교적 가부장제는 남성의 여성 지배의 동아시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음양의 논리를 내세운 남녀 이분법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체계의 근간을 이루었다.¹⁾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사회의 개방과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남녀관계의 규범에 패러다임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호주제 폐지에 이어 간통제도 폐지되면서 남녀관계는 더 이상 법이 관여하지 않는 사적 영역이 되었다. 이제 유교적 가부장제를 뒷받침하던 남녀 차별적 법제도는 거의 해체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숙인의 『정절의 역사』는 조선시대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여성에게 강요된 정절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여성의 몸속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 지배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다. 남성의 여성 지배, 그것은 일차적으로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모든 인간 사회의 질서 밑바닥에는 성적 질서가 자리하고 있다. 성리학을 내세운 조선사회의 지배층은 새로운 국가를 세우면서부터 “남녀의 정욕 관리”를 “치국 治國의 요건”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여성에게 정절貞節을 요구했다. 정절貞節에서 정貞은 성적 순결을 의미하고 절節은 여성의 의무를 뜻했다. 정절이라는 규범으로 여성의 성행위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규율했다. 정절의 의무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순결을 지키고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거나 최소한 수절하며 여생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정절에 대한 강조는 일상 언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1) 남성의 여성 지배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로는 피에르 부르디외(지음), 『남성지배』, 김용숙, 주경미(옮김), (동문선, 2000)을 볼 것. 남녀이분법에 대해서는 김혜숙, 『신음양론』(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227-284쪽을 참조할 것. 음양론은 한국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보는 김혜숙은 여성을 음으로 남성을 양으로 보았던 기존의 음양론을 해체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음 또는 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양가적 존재로 재구성한다.

과부寡婦라는 용어는 과덕지부寡德之婦의 준말로서 ‘덕이 부족한 부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미망인未亡人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할 사람인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여성을 말한다.(이숙인, 2014: 405)

흔히 충과 효라는 가치는 함께 붙어 다니면서 충효사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거기에 열을 덧붙인 충효열이야말로 유교적 질서의 근간을 이룬다. 정절의 극단적인 형태를 말하는 열렬은 충효忠孝와 함께 삼강오륜의 삼강을 구성하는 기본 가치가 되었다.²⁾ 충忠, 효孝, 열렬이라는 세 개의 가치를 구현하는 ‘충신’과 ‘효자’와 ‘열녀’는 조선 시대의 이상적 인간상이 되었다. 충절은 국가를 유지하는 덕목이었고 효행과 정절은 가족을 유지하는 덕목이었다. 세종 조에 널리 퍼진 『삼강행실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정열貞烈함은 하늘의 법칙에 근본한 것입니다. 신하로서 이것을 하고, 아들로서 이것을 하고, 아내로서 이것을 하는 것은 순종하는 땅의 도리에 근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법과 땅의 도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³⁾

조선사회의 지배층은 법전을 통해 정절을 제도화하고 모든 집안의 가정교육과 마을 공동체의 규약인 향약을 통해 여성들에게 정절의 가치를 주입시켰다. 국가가 나서서 열녀를 보상하고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정절이라는 가치를 여성의 몸속에 체화시켰다. 『정절의 역사』는 그 모든 사항을 다룬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조선경국전』(1394), 『경제문감』(1395), 『경제육전』(1397), 『경제육전 속전』(1407), 『경국대전』(1485), 『대전속록』(1493), 『대전후속록』(1543), 『수교집록』(1698), 『신보수교집록』(1739), 『속대전』(1746) 『대전통편』(1785), 『대전회통』(1865) 등에 나타난 여성의 정절문제와 관련된 법률들을 검토하면서 정절에 대한 규율을 실행하기 위한 포상과 처벌의 구체적인 실례를 보여준다. 2부에서는 ‘절부’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유교 지식인들이 쓴 기록을 통해 열녀가 ‘발견’되고 ‘발명’된 것임을 보여준다.⁴⁾ 3부는 『삼강행실도』, 『열녀전』, 『여사서』, 『예기』, 『소학』, 『여계서』, 『사소절』 등에 나오는 정절의 구체적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부는 세종조의 유감동 사건과 성종조의 박어을우동 사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음탕한’ 여성에 대한 남성 사대부들의 논쟁을 검토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숙인은 『정절의 역사』를 펴내기 전에 유교문화권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검증하는 일련의 작업을 계속해 왔다.⁵⁾ 유교 경전 『예기』에 나타난 여성은

2) 이로써 아내의 간통 행위는 남편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국가의 근본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되었다.

3) 이숙인(2014) 184쪽에서 재인용.

4) 절부와 열녀의 발굴은 조선 오백년 내내 국가의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이숙인(2014: 130)은 조선조 절부의 유형과 인원수를 표로 제시하고 있다.

5) 이숙인은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정절의 역사를 연구했다. “페미니즘은 남성 일방적 지배원

리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했으며 기원전 1세기에 서한의 사상가 유항이 쓴 중국 최초의 여성 전기, 『열녀전-중국 고대의 106여인 이야기』와 영조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사서』를 우리말로 옮겼다. 여성의 역사와 관련된 두 고전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면서 이숙인은 중국과 조선의 서로 다른 시기에 편찬된 교훈서들의 내용을 드러냈는데 『정절의 역사』는 그런 교훈들이 조선 시대 여성들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를 보여준다. 고대 이래 여성을 틀 지웠던 여성 수신 교과서들의 내용이 조선 시대 여성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

나에게는 6.25 전쟁 때 남편을 잃은 이모가 한 분 있었다. 20대 초에 청상과부가 된 이 이모는 평생 수절을 하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책을 읽다가 그 답을 발견했다. 조선 후기의 지식인 성호 이익은 정절의 가치를 내세워 조선이 동방예의지국임을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내세웠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속에 중국도 따르지 못할 것이 있는데, 미천한 여자도 절개를 지켜 개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국법에 개가한 자의 자손은 청선淸選의 길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 벼슬에 희망이 없는 여염의 미천한 부녀자 여종들도 때로는 음욕을 금하고 정조를 지킬 줄 아는 자가 있으니, 교화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장원함을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다.”⁶⁾

나의 이모님의 경우를 보면 조선시대가 아니라 20세기 중반에도 정절이라는 규범은 강력한 규범으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⁷⁾ 정절이라는 개념은 어떤 과정을 통해 모든 여성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정절의 규범은 조선 전기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로부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일반 상민 여성들에게도 강력하게 주입되었다.⁸⁾ 병자호란 이후 전쟁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여성들은 ‘버린 몸’, ‘더럽혀진 몸’으로 규정 당했다. 환향녀들은 그런 몸으로 더 이상 조상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이유로 집

리를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독주를 긍정하는 것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서로 이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상생적, 상보적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숙인1996: 13-14)

6) 이숙인(2014) 332쪽에서 재인용.

7) 1950년 6.25전쟁 무렵 한국 농촌사회의 이야기를 다룬 조은의 소설 『침묵으로 지은 집』(문학동네, 2003)에는 수절하는 과부들이 여럿 등장한다.

8) 일부종사, 삼종지도, 칠거지악, 현모양처 등이 당연한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정절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마르티나 도히힐러의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이훈상 옮김(아카넷, 2003)에 나오는 조선사회의 유교화 과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 정절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안에서 내침을 당했다. 환향부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관직에 오를 수 없다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여성의 정절을 기초로 ‘신성한’ 가족 만들기 작업이 계속되었다. 『여사서』를 비롯한 여성 교육용 교재들은 여성의 삶의 틀을 짜고 그들의 의식과 행위를 규제하는 지침을 제공했다.⁹⁾ 그 내용이 세월이 흐르면서 몸속으로 스며들고 체화되어 여성들의 몸짓과 걸음걸이 말하는 방식과 얼굴 표정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을 공적인 활동에서 배제하고 사적 공간 속에 머물게 하면서 남성의 여성 지배는 시작된다. 여성들을 사적 공간에 머물게 하는 암묵적인 이유가 바로 정절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의 몸속으로 스며든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분석하는 이숙인의 작업은 그것을 해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정절의 역사』는 여성의 삶을 옥죄는 집단 무의식을 의식의 차원으로 떠올려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여성 개개인의 특수성을 넘어서 모든 여성의 삶을 지배하는 집단 무의식은 남성중심 사회의 긴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모든 여성들은 어머니로부터 어머니는 할머니로부터 할머니는 그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로부터 여성의 집단무의식을 전달받는다. 전통시대의 여성에 대한 연구는 현대 사회의 여성 연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숙인은 자신의 연구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고 잡을 수는 없지만 느슨하게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심층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문명, 근 백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내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경험을 방치하고 그들의 기억을 은폐해온 감이 없잖아 있다. 은폐된 기억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 반복될 수 있고, 방치된 경험 속에는 보석이 숨어있을 수 있다. 기억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기억과 대면하여 그것을 해체해야 하고, 경험이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망으로 가공해야 한다.”(2003: 6-7) 그래서 『예기』에 나타난 여성윤리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했으며, 기원전 1세기에 서한의 사상가 유향이 쓴 중국 최초의 여성 전기, 『열녀전-중국 고대의 106 여인 이야기』를 우리말로 옮겼다.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축소하고 왜곡하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절의 윤리 비판

조선 후기 양반 지식인들이 남긴 문집에는 여성의 지조를 칭송하는 ‘열녀전’ 또는 ‘열부전’이 한두 편씩 들어있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글의 앞부분에서 충효열 세 개의 덕목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지만 유학자들의 문집에 열부전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열녀의 절개와 선비의 지조를 동일선상에 놓고 강조함으로써

9) 『여사서』는 여계, 여논어, 내훈, 여범첩록 이렇게 네 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질서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2014: 342-343) 그러나 때로 남편을 따라죽는 열녀의 죽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비들도 있었다. 정시한(1625-1707)이라는 선비는 “까닭 없이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은 바른 의리가 아니다”라며 열녀의 무모한 죽음과 과도한 자기희생을 거부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열녀 풍습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다. 연암 박지원(1737-1805)은 “마침내 우리 왕조 4백 년 동안 백성들이 오랫동안 앞장서 이끄신 임금님의 교화에 이미 져서, 여자는 귀하든 천하든 간에, 또 일족이 미천하거나 현달했거나 간에 과부로 수절하지 않음이 없어 드디어 이로써 풍습을 이루었으니, 옛날에 칭송했던 열녀는 오늘날 도처에 있는 과부들인 것이다”라고 현실을 묘사한 다음 “왕왕 한낮의 촛불처럼 무의미한 여생을 끝내버리고 남편을 따라 죽기를 빌어, 물에 빠져죽거나 불에 뛰어 죽거나, 독약을 먹고 죽거나 목매달아 죽기를 마치 낙토를 밟듯이 하니, 열녀는 열녀지만 어찌 지나치지 않은가”라며 열녀 풍습의 과함을 지적했다.(이숙인, 2014: 346) 다산 정약용(1762-1836)도 “남편이 편안히 천수를 누리고 안방 아랫목에서 조용히 운명했는데도 아내가 따라 죽는다. 이는 스스로 제 목숨을 끊은 것일 뿐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죽음이 의羲에 합당한 것인가 하면 천부당만부당하다. 나는 확고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천하에서 제일 흉한 일이라고 여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혜강 최한기 (1803-1877) 역시 열녀를 유학의 근본에서 벗어나는 말류의 폐단으로 보았다.

정절의 ‘사회사’를 향하여

『정절의 역사』는 풍부한 사실과 정보 제공이라는 장점과 미덕을 지니고 있다. 저자는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로 정절의 역사는 크게 보면 ‘조선사회의 유교화’라는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했다. 조선사회의 유교화 과정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보면서 정절의 윤리가 여성의 삶 속에 어떻게 뿌리내리는가를 드러내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이숙인의 저서를 이효재의 저서와 이어보면 정절의 역사가 갖는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한국 여성학의 어머니 이효재는 은퇴 이후 조선 후기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여성의 삶을 옥죄던 가부장제의 기원을 추적했다.¹⁰⁾ 가부장제의 철폐, 한국사회의 민주화, 분단체제의 극복은 이효재 사회학의 세 가지 이념적 지향점이 있었다. 이효재의 말을 들어보자.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여성의 자주적인 사회참여 없이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여성이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의 관계에서 자주적 존재로 거듭나서 평등한 시민으로 사회에 참여해야만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념에서 식민지 시대를 살아오면서 내가 궁금한 여성들의 삶, 즉 가부장제 아래에서 압박당하며 예측된 삶을 살아온 여성들의 문제를 가족과의 관

10) 이효재, 『조선조 가족과 사회-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한울, 2003)

계에서 먼저 연구하고자 하였다. 개별적 인간으로서의 여성들의 주체성 확립이 가족의 민주화 즉 가부장제의 극복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에서 가부장제 가족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¹¹⁾ 이효재는 여성의 역사를 가족의 역사 속에 넣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시 그의 말을 들어보자 “1970-1980년대에는 한국사회사 연구와 가족제도사 연구에서 가부장제 확립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로써 혼속婚俗과 친족관계가 신라 고려시대를 통해 모계적 형태에서 중국의 종족제 문화 도입의 영향을 받으며 점차 제도적으로 역사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선조의 가족제도를 연구한 최재석의 실증적 연구는 조선 전기까지 지속된 처가살이 혼속, 부모양측적 친족관계, 아들딸의 균분상속 및 돌림제사 등의 관습이 조선 후기에 일어난 엄격한 부계중심의 가부장제로 변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데 기여하였다. 한국사회사에 있어서 가족과 혼인생활이 성차별적인 가부장제로 변한 역사는 불과 200년 남짓 경과한 것에 비해, 가부장제 전통은 우리 삶에 뿌리 깊게 내려 집단적 의식과 공동체적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되었다.”¹²⁾

조선 후기에 가면 신분제하에서 지배와 착취의 대상인 상민과 노비층도 정절의 규범을 내면화하게 된다. 정절의 윤리가 어떻게 양반층 여성을 넘어 모든 여성의 의식 속에 내면화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이효재는 성차별과 신분차별을 연결시킨다. “열녀와 효부의 미덕을 강조하는 가부장제는 우리 가족사에서 뿌리 깊은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역사적 모순을 규명하고 싶었다. 이 책은 가족사적 연구를 통해 양반층 여성뿐만 아니라 상민, 노비층 여성들 사이에서 가부장제의 가치와 정절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역사적 사실을 신분제 사회와 연관시켜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¹³⁾ 상민과 노비층은 스스로를 양반으로 만듦으로써 착취와 지배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가부장제 양반 문화를 수용하고 내면화했다. “신분사회에서 민중들은 그들의 생존이 깃뺏히고 가족보존의 공동체적 삶이 위협을 당하는데서 신분상승을 꾀하였다. 그들은 양반 신분을 지향하며 합법·비합법적 방법과 수단을 통해 신분상승을 성취하였고, 적극적 대응으로 양반화함으로써 불평등한 신분제를 극복하려 하였다. 그들에게 양반으로서의 신분상승은 일차적으로 호적상에 기재된 직영과 신분표시를 위조하는 것이었다.”¹⁴⁾ 이처럼 민중들의 신분상승 지향성은 가족생활에서 양반문화를 모방하고 생활화하면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했다. 그에 따라 여성들은 정절의 윤리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정절의 역사』를 읽으면서 느끼는 두 번째 아쉬움은 이 저서가 조선시대까지만 다루

11) 이효재, 윗글, 10쪽.

12) 이효재, 윗글, 11쪽.

13) 이효재 윗글, 12쪽.

14) 이효재, 윗글, 21-22쪽. 조선조 노비들의 신분상승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분석한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역사비평사, 2014)을 참조할 것.

고 그 이후 어떻게 변화를 겪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절의 역사는 조선 시대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독자로서는 개화기 이후 식민지시기를 지나 오늘날에 이르는 정절의 역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동학이 신분제 철폐와 더불어 부녀자들의 재가 허용을 주장하게 된 근거가 궁금하고 식민지 통치와 가부장제의 변화가 궁금하다. 나혜석으로 상징되는 일제 강점기 신여성의 등장, 그들이 시작한 ‘연애의 시대’가 정절의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궁금하다.¹⁵⁾ 해방 이후의 한국 전쟁을 겪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쳐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에 이른 오늘날 정절의 역사는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알고 싶다.

성해방과 성풍속의 변화

남녀칠세부동석이 남녀칠세자동석이 되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남녀유별의 원칙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60년대 말 70년대 초반 하더라도 교복을 입은 중고생이 이성친구와 함께 빵집에 들어갔다가 사찰 교사에게 걸리면 정학을 받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이런 규율도 정절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조선의 정절문화는 여성들을 3촌 이내의 가족과 친족들 이외의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집안에 가두었다. 남녀유별의 문화는 이성과의 만남을 금지시켰다. 남녀유별의 뿌리인 부부유별夫婦有別의 별別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 하나는 여자가 안의 일을 담당하고 남자가 밖의 일을 담당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배우자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부관계가 아니면 남녀는 대면은커녕 쳐다보는 것도 금지되었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항복의 어머니는 오빠나 남동생과 대화할 때도 중간에 하녀를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도 지속되고 있는 동성 간의 사회적 교류관계만을 허용하는 호모소셜 homosocial의 사회는 정절의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녀관계의 변화는 그런 문화에 대한 반작용이다. 남녀 간의 절대적 분리와 자연스런 성적 욕망에 대한 과도한 억압은 남녀관계를 오로지 성적인 관계로만 축소시키기 때문에 남녀관계의 사회적 차원이 사라지고 과잉 성애화된다.¹⁶⁾

이제 호주제에 이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미혼 남녀의 결혼 전 성관계와 기혼 부부의 혼외 성행위를 규제하던 성에 관한 도덕률이 법적으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

15) 권보드레, 『연애의 시대: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현실문화연구, 2003) 참조.

16) 그렇다고 유교적 규범이 인간의 성욕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세종 조에 기생을 없애려고 했을 때 재상 허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생 폐지를 반대했다. “남녀관계는 인간의 큰 욕망이니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을의 창고는 모두가 관청의 물건이니 취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일 이것을 엄한 금법으로 한다면, 나이 젊어 지방으로 부임한 조관朝官들이 모두 불의하게 사шат집 여자를 탈취함으로써 영웅, 준걸의 인물이 많이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니, 신의 의견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이숙인(2014), 237쪽에서 재인용.

었다. 결혼 전 순결이라는 덕목이 사라지고 20대가 되어서도 성적 순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성적 매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열등감을 갖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한 여성 시인은 여성의 성을 억압하던 정절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거부한다.

강

문정희

어머니가 죽자 성욕이 살아났다
불쌍한 어머니!
태양 아래 섰다
태어난 날부터 나를 핏던 짐승의 혀가 사라진 자리
냉기가 오소소 자리 잡았다

드디어 딸을 버렸다!
고려야 조선아 누대의 여자들아, 식민지들아
죄 없이 죄 많던 수인들아, 잘 가거라
신성을 넘어 독성처럼 질긴 거미줄에 얽혀
눈도 귀도 없이 늪에 사는 불귀신들아
끝없이 간섭하던 기도 속의
현모야, 양처야, 정숙아,
잘 가거라, 자신을 통째로 죽인 희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제압하던 당신을 배반할 수 없어
물 밑에서 숨 쉬던 모반과 죄책감까지
브래지어 풀듯이 풀어버렸다

어머니 장례식날, 여자와 잠을 자고 해변을 걷는 사나이
말하라, 이것이 햇살인가 허공인가
나는 허공의 자유, 먼지의 고독이다
불쌍한 어머니, 그녀가 죽자 성욕이 살아났다
나는 다시 어머니를 낳을 것이다.

1947년생인 시인은 자신이 정절의 역사의 굴레 안에 있었음을 이렇게 증언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이혼을 꿈꾸기는커녕, 연애시조차 제대로 못했거든요. 어머니

는 제게 전통적인 사랑과 윤리를 강요하는 억압의 바탕이고, 종교였기 때문에 저는 늘 건전한 딸, 근사하고 자랑스런 모범생으로 보내야했었지요.”¹⁷⁾ 위의 시에서 ‘성욕’은 육체적인 욕망이라기보다는 억압되었던 모든 것의 문학적 비유다. 그것은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에너지”를 말한다.¹⁸⁾ 아래의 시는 거기에서 한 걸을 더 나아간다.

나목을 위하여

문정희

남자를 위하여 옷을 입는다고?
아니지
남자를 위하여
옷을 벗은 적은 있지

떠오르는 방

허허벌판에 누워서
깨끗한 남자를 기다린다
불꽃같이 울면서 짐승같이
젖무덤 밑으로 기어든다
나무들도 간지러워
푸른 소리를 지르고
드디어 그 남자가
길을 무찔러 오는 소리

이제 여성은 자기 몸의 주인이 되었는가?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여자의 몸은 성전이고 지옥이고 꽃밭이자 폐허다. 생명이 쏟아지는 방앗간이기도 하고 욕망이 포탄처럼 터지는 전쟁터다. 모든 여자의 몸은 신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때론 신의 슬픔, 신의 저주 같기도 하다.”¹⁹⁾ 정절의 역사는 끝났는가? 여성의 성은 해방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오는 여성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인가?

17) 문정희, 유인경, 『여자의 몸』, 여백, 2015, 17-18쪽.

18) 문정희, 유인경, 윗글, 27쪽.

19) 문정희, 유인경, 윗글, 5쪽.

참고문헌

강혜경, 2008, “양반여성 종부의 유교 도덕 실현의 의의: 근현대 영남지역 종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8집: 169-222쪽.

권내현, 2014,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권보드레, 2003, 『연애의 시대: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현실문화연구.

김혜숙, 2014, 『신음양론-동아시아 문화논리의 해체와 재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도이힐러, 마르티나, 2013(1992), 『한국의 유교화 과정: 신유학은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나』, 너머북스.

부르디외, 피에르, 2000, 『남성지배』 김용숙, 주경미 옮김, 동문선.

이숙인, 2014, 『정절의 역사- 조선지식인의 성담론』, 푸른역사.

----, 2007, “여성의 탈식민화와 전통의 재개념화: ‘억압’에서 ‘현존’으로” 『여/성이론』 17호: 52-76쪽.

----, 2003, “역자 서문: 기억의 재구성” 왕상(지음), 『여사서』, 이숙인 역주, 여이연, 5-7쪽.

----, 2002, “『여사서』 읽기의 방법과 사상” 『여/성이론』 6호: 102-128쪽.

----, 2000, 유향 『열녀전』에 나타난 여성의 지식세계“ 『여/성이론』 3호: 171-195쪽.

----, 1996, “유향이의 말” 유향(지음), 이숙인(옮김), 1996, 『열녀전-중국 고대의 106 여인 이야기』, 예문서원: 9-15쪽.

이효재, 2003, 『조선조 가족과 사회-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 한울.

정수복, 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생각의나무.